

## 17th Story

#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Garden Betrayal

#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 17th Story -

- 나레이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예수님 이 곳에서 기도하고 있어라. 나는 저 곳에서 혼자 기도하겠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와 함께 가자꾸나.
- 나레이션 그들이 가고 난 후 예수님은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예수님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 베드로 물론이죠, 주님.
- 야고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레이션 예수님은 조금 더 멀리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 예수님 나의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 나레이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니, 주의 천사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격려해주었습니다.
- 가브리엘 나의 주여!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인지 압니다. 저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 예수님 그렇다. 난 이 일이 꼭 일어나야만 함을 알고 있고 다른 방법을 소망한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다. 세상 어떤 나라에 속해 있던지, 어떤 언어로 말하는지 상관없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주님 앞으로 나아올 것이다. 죄의 사슬이 더 이상 그들을 묶어두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기 때문이다.
- 나레이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 예수님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거라.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베드로,야고보,요한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레이션

예수님은 여전히 슬프고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을 때, 또다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은 너무나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셔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어요. 마침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아직도 자고 있느냐?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베드로,야고보,요한

뭐..? 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나레이션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유다와 함께 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가롯유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베드로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야고보

주님??

예수님

친구여, 네가 하려는 것을 하라.

나레이션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니 갑자기 무리 중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잡고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들어서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는데 그의 귀가 잘렸어요.

예수님

안 된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당장 열두 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달라고 청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예언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나레이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병사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 예수님을 버리고서 달아났어요.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에 대해 거짓말을 했지만,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후 가야바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가야바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나레이션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불만스러웠어요.

가야바 그렇군.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님 당신이 말하였소. 하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나레이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대제사장은 화를 내면서 자기 옷을 찢었어요.

가야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장로들, 대제사장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요?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오! 그는 죄를 지었소!